전남도-농관원 협의체 구성 큰 성과 직불금 업무 효율화 농업인 불편 해소

지자체·농관원 분리 업무 일원화
나주서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
감액예방 조치 등 5대 과제 논의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해 하반기 구성한 업무협의체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업무는 지자체에서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 이행 점검' 등을 하는 등 기관 간 업무가 이원화돼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 농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다. 또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점검 한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 조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한 농가들의 민원도 쇄도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업무협의체'는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예방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나주에서 공익직불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열어 업무협의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정책과, 전남도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 22개 시·군, 19개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공익직불금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인 ▲공동홍보 ▲감액우려 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 경작 여부 합동조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멘토링 등을 담은 결의문 낭독하며 상호 협업체계 강화 결의를 다졌다. 또 준수사항, 지도점검, 부정수급 등을 중점으로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 불편 해소와 직불금 감액 예방 등 농가소득 보전에 힘쓰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연과 교감하며 쑥쑥…숲 놀이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6~7세 어린이 '유아숲 교육'
전남도산림자원硏 11월까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2023년 유아숲교육'〈사진〉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전남지역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유아숲교육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유아숲교육은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한 26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운영된다. 수시반 신청은 체험 1주일 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방문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풍부한 자연생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하도록 '산이랑 단이와 떠나는 숲속여행(산림청 인증 제2018-45호)' 등 다양한 숲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를 통해 매월 새로운 자연 친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알찬 교육 운영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내 생태체험 놀이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안전시설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다양한 숲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숲체험원 내 자연놀이 시설을 지속 정비해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숲에서 감성을 키우고,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00여 년간 가꿔온 나무와 아름다운 숲을 일반인에게 연중무휴로 공개하고 연구소 자원을 이용한 숲 해설과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천일염 활용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

전남도가 화장품·세척용품 등 천일염을 활용한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6월 8일까지 모집한다.

'천일염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천일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며, 참여 대상은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가공 기업이다. 단순 상품의 포장·디자인 마케팅만 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천일염은 그동안 조미료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됐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해 '조미료'에서 '생활용품' 영역으로 확대해 국내외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최대 2024년 12월까지며, 지원 규모는 2~3개 내외의 천일염 생산·가공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첨일염을 활용한 제품 개발비와 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 과학적 효능·기능 및 인증비 등으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섬진강 동방천에 어린 황어 50만 마리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과 연구 협력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11일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섬진강 동방천 수변공원에서 어린 황어 50만 마리를 방류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이현창 전남도의원, 섬진강어족보존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어린 황어의 넓은 세계로의 출발을 응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지난 2월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과 황어 자원 조성과 연계한 전남·울산 내수면 전시·연구기관 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을 논의했다.

연구 협력 논의 후속 조치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에 어린 황어 5만 마리를 지원해 상생과 협력 의미를 더했으며 태화강 생태관은 오는 6월 10일 어린 황어를 태화강에 방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 건강증진·식품안전관리 최우수

여수·함평·해남 우수기관 표창

전남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22회 식품안전의날 기념행사에선 전남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포함해 여수·함평·해남 등 3개 시·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식약처장 표창을 받아 전남이 식품안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식품위생공무원 전문성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 3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위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및 기초위생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남도는 2013년부터 8차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식품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관리역량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았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기반시설,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가점 등 4개 영역에서 ▲직무교육 이수율 ▲업체 점검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 일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 실적 ▲식품수거 목표 달성률 및 입력률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등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산업인재 125명 해외 현장 연수 추진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농어업, 제조업, 신산업,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버팀목인 산업역군의 소득 증대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를 추진한다. '2023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는 전남도 브랜드 인재육성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제적 기준 학습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현재 전남지역 사업장에 2년 이상 종사 중이며,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1인 사업자나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 어업, 제조업, 신산업,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각 25명씩 총 125명의 산업인재를 선발해 6월 14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4일 기간 중 8박 10일 동안 각 산업 분야별 선진 강국을 방문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